



한국GM, 쉐보레 대리점 콘퍼런스… 비전·목표 공유

한국GM은 지난 18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2025 쉐보레 전국 대리점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쉐보레 전국 대리점 대표와 1분기 우수 판매자를 포함한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쉐보레의 비전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다. /한국GM



진에어, 한진그룹 LCC 3사 합동 등반 대회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한진그룹 LCC 3사 임직원 간 단합을 위한 북한산 합동 등반 대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등반에는 각 사의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에어 사내 등산 동호회 '진사랑 산사랑'이 주축이 되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임직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진에어



LX인터·LX판토스, 인왕산 일대 환경정화 활동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는 임직원 40여 명과 지난 18일 서울 인왕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일동후디스, '하이문 스타디움 투어' 성료

일동후디스 하이문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이문 스타디움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이문이 2025 시즌 FC서울과의 공식 스폰서십 체결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 이벤트로 참가자들은 라커룸, 인터뷰존, 벤치석 등 생생히 체험하며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일동후디스

IR협의회, 양태영 회장 취임

양태영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사진)이 한국IR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IR협의회는 제9대 회장에 양태영 전 본부장을 선임하고, 21일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를 거쳐 청산결재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을 맡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 '코랄 인 포커스' 성과 공개… 산호초 1만㎡ 복원

갤럭시 카메라 기술로 생태계 기여 '오션 모드' 개발… 3D 복원도 제작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해 1년 동안 농구장 25배 크기 면적의 산호초를 복원하는데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의 해양학 연구소 스크립스와 미국 비영리단체 시트리와 함께 진행 중인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의 1주년 성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해 산호초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원 활동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바닷속 생태계를 관찰하며 새롭게 심어



삼성전자가 해양 보호를 위해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Coral in Focus)'를 위해 산호초를 찍고 있는 모습.

진 산호수는 총 1만1046개이며, 1만705㎡의 해양 내 산호초 면적이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해양 환경 보호와 탄소 순환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호초 복원과 다양한 연구를 활용하기 위해 3차원(3D) 산호초 복원도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삼성전자는 지역 활동 단체들이 무겁고 보조 장비가 많은 수중 카메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갤럭시 스마트

폰 카메라용 '오션 모드'를 개발해 제공하기도 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가볍고 얇아, 수심 10m 아래로 잠수하기 편하고 산호초 근접 촬영도 쉬워 복원도 제작이 수월하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오션 모드'로 촬영한 산호초 사진은 총 17개의 3D 산호초 복원도로 제작됐으며 산호초 군락 재생의 토대가 됐다.

삼성전자는 더 나은 갤럭시 생태계를 위한 환경 지속 가능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를 지난 2021년 발표 후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삼성전자는 특히 폐어망을 정밀한 스마트폰 부품 소재로 재활용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견기업계, 산불 피해복구 성금 5.1억 기부

중견련 SIMPAC 등 29개 기업 참여

중견기업계가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영남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5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사진)는 특별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회장사인 SIMPAC을 비롯해 서연이화,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와이씨, 대창, 오로라월드,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엔서해에너지,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에프티, 골든블루, 에프에스티, 코반, 보미건설, 아바코, 원일특강, 서원인텍, 코넥, 동아엘텍, 모나용평, 대덕휴비즈, 선일다이파스, 유로라인글로벌 등 29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중견련은 지난 2018년 '중견기업인 책임경영 선언'을 발표하고,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협력

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사와 함께하는 중견기업계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과 물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유명을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은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동아오츠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앞장

농구·야구 등 주요 대회 후원

동아오츠카는 전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서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27년간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후원해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당일 진행된 대회에서 성적이나 순위에 따른 시상 없이, 참가한 모든 구단에게 포카리스웨트 음료를 전달하는 '포카리

스웨트 행복나눔상'을 시상했다.

앞서 18일부터 20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린 '제3회 폐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와 2026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도 3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포카리스웨트와 생수 '마신다' 등을 제공하며 선수들의 수분 보충과 경기력 유지에 기여했다.

이진숙 동아오츠카 마케팅본부 전무는 "열정에서 흘러나오는 선수들의 땀은 그 자체로 큰 감동과 가치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동아오츠카는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강민석 부사장, 과학기술훈장 수훈

(LG이노텍)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기여

LG이노텍은 강민석 기관소재사업부장(부사장·사진)이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응모장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훈장은 매년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훈장이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5년 LG이노텍 선행부품연구소장으로 부임해 광학솔루션사업부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거쳐 현재 기관소재사업부장을 맡고 있다. 광학 및 반도체 기관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훈자로 선정됐다.

강 부사장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모바일 카메라 모듈과 통신용 반도체 기관 사업이 글로벌 1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견인했다. 대표적으

로 반도체용 기관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RF-SiP, AiP 등 통신용 반도체 기관의 글로벌 토퍼 임지를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강 부사장은 CTO 재임 시절 축적한 DX/AI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공정의 DX(디지털 전환)를 적극 주도했다. 특히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전 공정 물류 및 검사 자동화를 실현한 FC-BGA 드립 팩토리(구미 4공장) 구축을 이끌었다.

강 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LG이노텍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재 부품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리더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인사

◆한국환경공단 ◇임용(별정직이사대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서승명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정기훈 △아프리카공동국장 정광용 △아프리카공동국 심의관 조수진

부음

▲조문경씨 별세, 이정환(HJ중공업 홍보팀장)씨 배우자상, 이윤중·준우씨 모친상=21일,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6호, 발인 23일 오전 5시30분. 051-893-4444